



재단 설립 공약 제주학센터 공간 확보마저 쪼쪼

2011년 개소 후 사무실 전전
2017년 문예재단 건물 입주
계약기간 만료 내년 떠나야
아카이브 자료관 꿈도 못꾸
안정적 공간 마련 발등의 불

민선 7기 제주도정 문화분야 공약으로 가칭 '제주학연구재단' 설립이 포함됐지만 재단화를 통한 제주학연구센터 독립은 고사하고 안정적 공간 확보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문을 연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 지하 등을 전전하다 2017년 2월 지금의 제주문화예술재단 건물 3층(약 200㎡ 규모)에 둥지를 틀었다. 3년 가까이 제주문예재단 건물 일부를 빌려 연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내년에 또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처지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몇년 새 사업과 인력이 증가하면서 현행 임대 공간 역시 비좁아 새로운 장소를 모색해왔다. 현재 제주학연구센터 인력은 사업별 위촉직을 포함 16명에 이른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공석으로 잠시 이전 계획 추진이 중단됐지만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새 입주 공간을 찾는 일에 나서고 있다. 앞서 제주문예재단에서도 회의

실 확보 등을 위해 올해 말 임대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제주학연구센터에 알려졌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경우 연구·사무 업무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이 제주학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카이브 전용 공간까지 구비하자는 주문이다. 이와관련 제주학연구센터는 이미 2차 운영 기본계획(2017~2022)을 통해 자료관, 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등을 두고 집금성이 고려된 제주학연구센터 독립 건물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만든 제주도지사 공약집에서도 제주학진흥을 위한 제주학연구재단 설립 항목에 고문서·공문서 등

을 비치한 역사자료관, 제주 관련 서적·문헌 정보자료실, 제주근현대사 사진·영상관, 민속자료관, 제주학선구자 자료관 설치 등이 제시됐다.

공약집에 따르면 제주학연구재단은 지난해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예산과 인력을 갖추고 2019년 개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승인하는 행안부에서 근거 논리를 좀 더 개발해야 한다며 보완 요청을 했고 제주도에서는 지금껏 타당성 조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류 공간 등 이사를 할 곳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단 설립까지 염두에 두고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29미터 그림 따라 초록 숲길 걷는 듯

임영실 개인전 '숲 속에서'
1년간 관찰하고 느낀 자연
전시장 동선 맞춰 제작 설치

초록 숲이 전시장에 살아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정대)의 2019년 청년문화개특성화사업인 청년예술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분야에 선정된 임영실 작가의 개인전이다.

제주 풍경을 화폭에 담은 임영실 작가는 이번에 지난 1년 동안 제주에서 관찰하고 느낀 자연을 전시장에 '재현'해놓는다. 꽃자왈이나 숲길을 오랜 시간 걷다보면 특정한 나무의 형

태, 꽃의 색 등에 점점 무디어지지만 연속적이고 무한하게 느껴지는 초록의 생동감을 경험하게 된다. 작가는 이같은 순간을 전시장으로 옮겨 숲길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만든다.

임 작가가 '숲 속에서'란 주제 아래 선보이는 작품 중에는 가로 29m, 세로 1m60cm 크기도 있다. 그림이 걸리는 서귀포 도심 이종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 동선을 고려해 구성된 작품이다. 그래서 임 작가는 이번 작업을 두고 '장소특정적 회화 설치'라고 했다.

전시는 이달 31일 시작돼 9월 5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800-9163.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임영실의 '숲 속에서'.

문화가 쏘지

손희정 문화평론가 강의

달리도서관은 '2019이어(year)달리기(記)' 프로그램으로 이달 29일 오후 7시30분 문화평론가 손희정씨를 초청한다.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대중문화와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다. 그는 이날 '보이는 것이 들러드릴 이야기'를 주제로 청중들과 만난다. 달리도서관은 제주시 신성로 12길 21-2 온누리D&P 건물 2층에 있다. 수강 문의 064)702-0236, dallibook@hanmail.net

붉은오름 숲속 콘서트

올해 다섯 번째 숲속 힐링 콘서트 '노고록이'가 이달 31일 오후 2시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 주제는 '우정'으로 피아노 트리오, 성악 이중창, 플루트와 아코디언 연주 등이 잇따른다. 그림책 전시, 실크스크린 체험, 빙떡 시식회 등 부대 행사도 있다. 공연 중에는 우영차가 제공되고 관람 후 비치된 엽서에 후기를 작성하면 실크스크린 손수건과 파우치를 선착순으로 준다. 문의 064)782-9171.

문화재야행 평가단 모집

제주문화예술재단은 9월 20~22일 제주목관아 등 제주시 원도심에서 열리는 제주문화재야행 도민평가단을 모집하고 있다.

도민평가단은 제주문화재야행 기간에 활동하면 된다. 행사 운영, 관람객 반응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주문화재야행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www.jcaf.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jihye7271@jfac.kr)로 접수하면 된다.

내달 제주 전국국악대전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가 주관하는 제주 전국국악대전이 9월 28~29일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36회 전국 민요경창대회와 2회 제주 전국 국악경연대회로 구성된다. 민요경창대회는 뿔소리 반을 모니터링하고 개신사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주문화재야행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제주국악협회 인터넷카페(cafe.daum.net/jeiukukak) 등 참고. 문의 064)759-3888.

詩(시)로 읽는 4·3 (23)

잔인한 비문

박남준

산 자의 지문으로 죽은 자의 침묵을 써왔노라
죽은 자의 노래로 산 자의 슬픔이 위로받으려니
봉인된 돌이 있다
쓰이지 못한
새기지 않은 이름이 갇혀 있는,
살아서는 낙인 붉은 사람들의
뼈와 살로 화석을 이룬
이를 악물고 그을린 울음 같은
비가 있다
저기 떠난 자의 다홍빛 명정에
흰 글씨를 써넣어야 하는가

지박령의 검은 이름표 블랙리스트로
탕탕 저격해야 하는가
백비, 부를 수 없어 말문을 담은
목비
때가 되었다 누워있는 돌이 일어나
사람의 말로 외칠 것이다
증언되리니 아비와 그 어머니와
아이들의 한라산이 매장당한 근대사
참으로 지독하고 잔인했던 평화의 피가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세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백비(白碑), 이름 짓지 못한 역사. '봉기, 항쟁, 폭동, 사태, 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탄압이면 항쟁'이라는 제주도민들이 보여줬던 저항 정신이야말로 역사를 발전시키는 정신이다. 70년 전 친일 부역세력은 이 나라의 독립 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학살하고 지금까지 지배 세력으로 군림한다. 국가는 도민들을 상대로 초토화 작전을 벌였다. 4·3의 모든 일은 미군정을 통해 이뤄졌다. 미군정은 해방 직후 한반도 38선 이남에 존재한 실질적 통치기구였다. 미군정은 제주도를 '사상이 불순한 빨갱이 섬'으로 매도해 제주 사람들을 탄압했다.

4·3 직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 브라운(Rothwell H. Brown)에

령은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라는 말을 남겼다. 또 "10%정도는 총으로 무장하였고, 나머지는 일본도와 재래식 창으로 무장하였다"고 밝혔다. 미군보고서에도 1948년 11월부터 제주섬에 대한 국방경비대 9연대의 초토화 작전을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했다. 미군정은 초토화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기를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토벌대의 무기와 장비도 적극 지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제주 민중을 대량 학살한 책임은 이승만 정부와 미국에게 있다. 미국 정부는 4·3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4·3 당시 미군정과 미국 군사고문단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8월 31~9월 7일 문학주간 즐겨볼까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올해로 네 번째 맞는 '문학주간'. 제주에서도 작은 서점 등에서 '2019 문학주간' 행사가 잇따른다.

제주에서 문학주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은 3군데다. 제주살롱(8월 30일 오후 7시 윤교은 작가와의 만남), 소심한 책방(8월 31일, 소심하게 수상한 대화),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과학문화공간 별곳(9월 7일 오후 2시,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의 과학소설을 이야기하자)에서 문학주간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학주간은 '문학진흥비' 시행을 계기로 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한국문학 진흥의 토대를 굳건히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문학주간에는 100여 명이 넘는 한국문학 작가들이 독자와 직접 만나는 등 전국 지역문화관, 서점, 학교 등에서 130여개 행사가 이어진다. 개막식은 8월 31일 오후 7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주간 블로그(blog.naver.com/arkomunhak) 참고. 전선희기자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터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예약계좌: 제주은행 21-13-003418 예금주: 제주홍익여행사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못말리는 제주직향전세기

예약폭발
마감임박!

말레이시아/싱가폴/말라카



매주 2회출발 (4박5일)
(화, 목)
999,000 원~

쿠알라룸푸/말라카/젠팅



매주 2회출발 (4박5일)
(화, 목)
799,000 원~

장사/장가계 5일

매주 월요일

출발 999,000 원
(포함: 팀·중국비자비)

방콕/파타야 3박5일



매일 출발
589,000 원~

대만 3박4일



출발일: 여행사 문의 (팀별도)
699,000 원~

백두산 북파서파



출발일: 여행사 문의 (비자비, 팀별도)
690,000 원~

브루나이공화국 3박 5일

12/21 ☞ **꿈에 그리던 휴양지**

12/25 ☞ **7성급 호텔에서 휴양!**

제주직향 1인 1,590,000 원



▲ 전일정 7성급호텔 스위트룸 3박
▲ 노쇼핑 상품 ▲ 읍선2가지 포함

하노이/하롱베이/닌빈(짱안) 3박5일 제주직향으로 떠나는 환상의 여행

10/02 ☞ **전여석 20석, 12/28** ☞

“황금연휴특가”

제주직향 선착순 899,000 원



★특식3회 (파라다이스뷔페, 씨푸드, 삼겹살 무제한)
★전선마사지 1시간 (팀별도), 베트남 전통노모자 증정, 스트라카 포함

ATA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정상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술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정보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마감-선착순 ★불포함: 가이드 & 기사 팀/개인비용, 부가세 불포함